

■ 열두달의 세시절기



시나브로 잊여지는 절기

동지

작은 설, 동지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동지(冬至)는 24절후의 스물두 번째 절기로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며 태양이 적도 이남 23.5도의 동지선(남회귀선), 곧 황경(黃經) 270도의 위치에 있을 때를 말한다. 그래서 양력 12월 22일이나 23일 무렵에 든다.

양력으로 동지가 음력 동짓달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仲冬至)', 그믐 무렵에 들면 '노동지(老冬至)'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태양력인 동지에다가 태음력을 잇대어 태음·태양력으로 세시풍속을 형성시켜 의미를 부여했다.

민간에서는 동지를 흔히 '아세(亞歲)' 또는 '작은 설'이라 했다. 태양의 부활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가는 작은 설로 대접하는 것이다.

이 관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해서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라는 말처럼 동지첨치(冬至添齒)의 풍속으로 전해진다. 또 동지는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 호랑이가 교미한다고 하여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도 부른다.

'생명력'과 '광명이 부활하는 날'로 생각

중국 주나라에서는 이날 생명력과 광명이 부활한다고 생각해 동지를 설로 삼았다. 당나라 역법서(曆法書)인 선명력(宣明曆)에도 동지를 역(曆)의 시작으로 보았다.

'역경(易經)'에도 복괘(復卦)에 해당하는 11월을 자월(子月)이라 해서 동짓달을 일 년의 시작으로 삼았다. 동지와 부활이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신라에 이어 고려시대에도 당(唐)의 선명력을 그대로 썼으며, 충선왕 원년(1309)에 와서 원(元)의 수시력(授時曆)으로 바뀔 때까지 선명력을 사용했다. 이로 보아 충선왕 이전까지는 동지를 설로 지낸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구미(歐美) 각국의 성탄절(크리스마스)도 초기 기독교가 페르시아의 미트라교(Mithraism)의 동지 축제일이나 태양 숭배의 풍속을 이용해서 예수 탄생을 기념하게 한 것이다. 신약성서에도 예수의 탄생 날짜 기록은 없다. 농경민족인 로마인의 농업신인 새턴(Saturn)의 새턴네리아 축제가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성했고, 그 중 25일이 특히 동지 뒤 태양 부활일로 기념된 날이었다.

동지하례 행하며 버선 선물하는 '동지헌말' 행해

궁중에서는 원단(元旦)과 동지를 가장 으뜸 되는 축일로 생각해 동짓날 군신(君臣)과 왕세자(王世子)가 모여 잔치를 하는 '회례연

양력 12월 22일·23일 무렵... 선달 음력 12월 '애동지·중동지·노동지·아세·작은 설'로 불러 관상감(觀象監)서 '새해 달력' 만들어 궁에 바쳐 백성, 모든 빛 청산하고 새 기분으로 하루 즐겨



(會禮宴)'을 베풀었다. 해마다 중국에 예물을 갖추어 동지사(冬至使)를 파견해 이날을 축하했고, 지방 관원(官員)들은 임금에게 전문(箋文)을 올려 진하(進賀)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관상감(觀象監)에서는 새해의 달력을 만들어 궁에 바친다. 나라에서는 이 책에 동문지보(同文之寶)라는 어새를 찍어 백관에게 나누어 주었다.

특히 옛날에는 농경 분위 사회였던 만큼 24절기 등 때에 맞추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달력이 요긴했고, 기재 내용도 그에 맞게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요즘에도 동지 무렵의 연말연시가 되면 새해 달력을 주고받는 풍속은 여전하다.

그런가 하면 '황감제(黃柑製)'라는 임시 과거를 실시해 인재를 동용하기도 했는데, '동국세시기' 11월조에 제주목에서 글, 유자, 꿀감을 진상하는 일을 적고 있다. 이 꿀들을 종묘에 진상하고 신하들에게도 나누어준다. 옛날 탐라의 성주가 이를 바칠 때 치하하는 의미에서 과거를 설치했다.

조선시대에도 이를 답습해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이고 꿀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과거의 이름을 '감제(柑製)'라 했다. 내의원에서는 소의 다리를 고고 여기에 백강(白薑), 정향(丁香), 계심(桂心), 청밀(淸密) 등을 넣어서 전약(煎藥)을 만들어 진상하고 각 관청에 이를 나누어 주었다. 이 약은 악귀를 물리치고 추위에 몸을 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동지가 되면 동지하례(冬至賀禮)를 행하며 버선을 선물하는데 이를 '동지헌말(冬至獻襪)'이라고 한다. 또 종묘에 청어(靑魚)를 천신하는데 경사대부(卿士大夫)의 집에서도 이를 행했다고 한다.

잡귀 막으려 '뱀 사(蛇)' 자 써 거꾸로 붙이기도

동짓날 연못의 갈라진 얼음의 모습이 마치 쟁기로 밭을 갈아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 '옹갈이(龍耕)'이라고 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언덕 가까운 쪽으로 세로 갈아나간 자취가 있으면 이듬해는 풍년이 들고,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북편을 횡단해 갈아나간다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혹 갈아나간 흔적이 동서남북 아무 데로나 종횡으로 가지런하지 않으면 평년작이 된다고 한다.

농사꾼들은 이것으로 이듬해의 농사일을 징험한다. 경남 밀양 남지에서도 '옹이 땅을 갈아 이듬해의 농사일을 징험한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이날은 동지부처(冬至符籙)이라 하여 뱀 '사(蛇)'자를 써서 거꾸로 붙여 잡귀를 막는 속신(俗信)이 있으며, 팔죽을 쑤어먹지 않으면 쉬이 늙고 잔병이 생기며 잡귀가 성행한다는 속신이 있다.

동짓날 일기(日氣)가 온화하면 이듬해에 질병이 많아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하며,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 풍년이 들 징조라고 여겼다. 또 동짓날이 추우면 해충이 적으며 호랑이가 많다는 믿음이 있다.

동지팥죽 쑤어 사당에 올리고 불우이웃 도와

예부터 동짓날이 되면 백성들은 모든 빛을 청산하고 새로운 기운으로 하루를 즐겼다. 또 일가친척이나 이웃 간에는 서로 화합하고 어려운 일은 서로 마음을 열고 풀어 해결했다. 오늘날 연말이면 불우이웃 돕기를 펼치는 것도 동짓날의 전통이 이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동지에는 동지팥죽을 먹는다. 팥을 고아 죽을 만들고 여기에 참쌀로 단자를 만들어 넣어 끓이는데, 단자는 새알만한 크기로 하기 때문에 새알심이라 부른다.

팥죽을 다 만들면 먼저 사당에 올려 동지고사(冬至告祀)를 지내고, 각 방과 장독, 헛간 같은 집안의 여러 곳에 놓아두었다가 식은 다음에 식구들이 모여서 먹는다. 사당에 놓는 것은 천신의 뜻이고, 집안 곳곳에 놓는 것은 축귀의 뜻이어서 이로써 집안에 있는 악귀를 모조리 쫓아낸다고 믿었다.

이것은 팥의 붉은색이 양색(陽色)이므로 음귀를 쫓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짓날이라도 동지가 음력 11월 10일 안에 들면 애동지라 하여 아이들에게 나쁘다고 해서 팥죽을 쑤지 않는다. 또 그 집안에 괴질로 죽은 사람이 있어도 팥죽을 쑤어먹지 않는다고 한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우물에 팥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질병이 없어진다고 하며, 사람이 죽으면 팥죽을 쑤어 상가(喪家)에 보내는 관습이 있다. 이것은 상가에서 악귀를 쫓기 위한 것이다. 팥죽은 동지에만 쑤어먹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상(喪)을 당하였을 때 쑤어 부조하기도 한다.

우리 조상들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나 재앙이 있을 때에는 팥죽, 팥밥, 팥떡을 해 먹는 풍습이 있었다. 요즈음도 이러한 풍습이 이어져 고사를 지낼 때에는 팥떡을 해서 고사를 지내고 있다.

고사의 목적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번성하기를 기원하고, 공사를 하는 사람은 공사가 아무런 사고 없이 완공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팥이 들어가는 음식은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믿지만 그 사실 여부를 떠나 팥이 지닌 여러 가지 효능으로 보아 건강식 품임에는 틀림없다.

한겨울 바람보다 매서운 각종 사건사고 등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한다. 입천장을 자극하는 따뜻한 팥죽 한 그릇으로 겨울의 무사를 기원하며, 남은 며칠에 최선을 다해봄이 어떨지.

■참고자료

- △東國歲時記, 荊楚歲時記
- △韓國의 歲時風俗 (張壽根, 蜚雪出版社, 1984)
-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 2003)